

第19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

「岐路に立つ日韓関係：これからどうすればいい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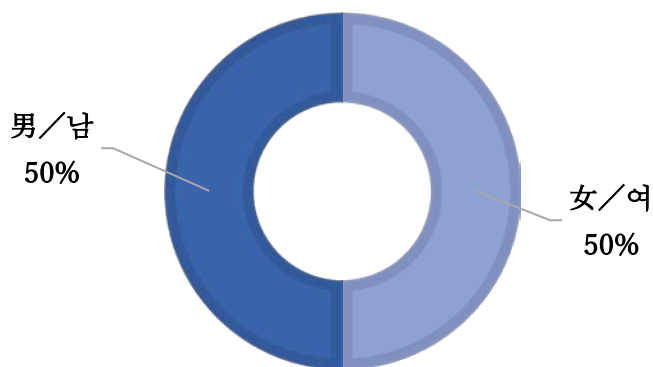
アンケート結果

実施日 : 2021年5月29日(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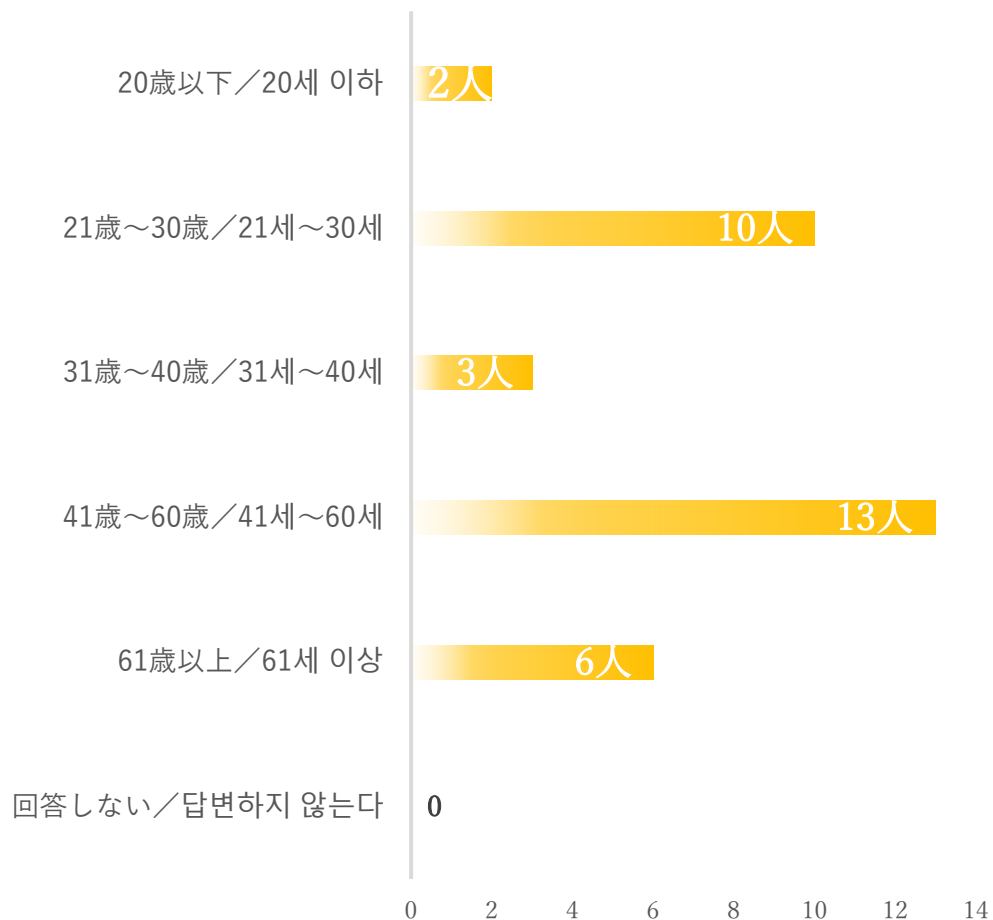
方法 : ウェビナー退出時のウェブ入力 (Zoom Webinar アンケート機能を利用)

回答数 : 34

性別
성별



年齢
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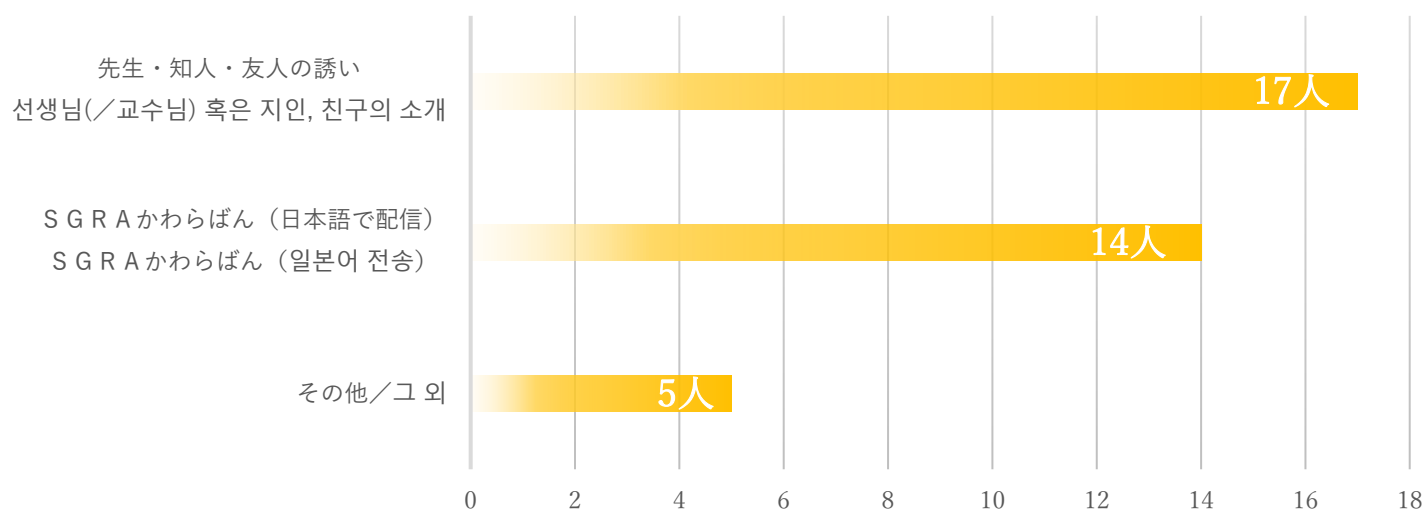
居住地 거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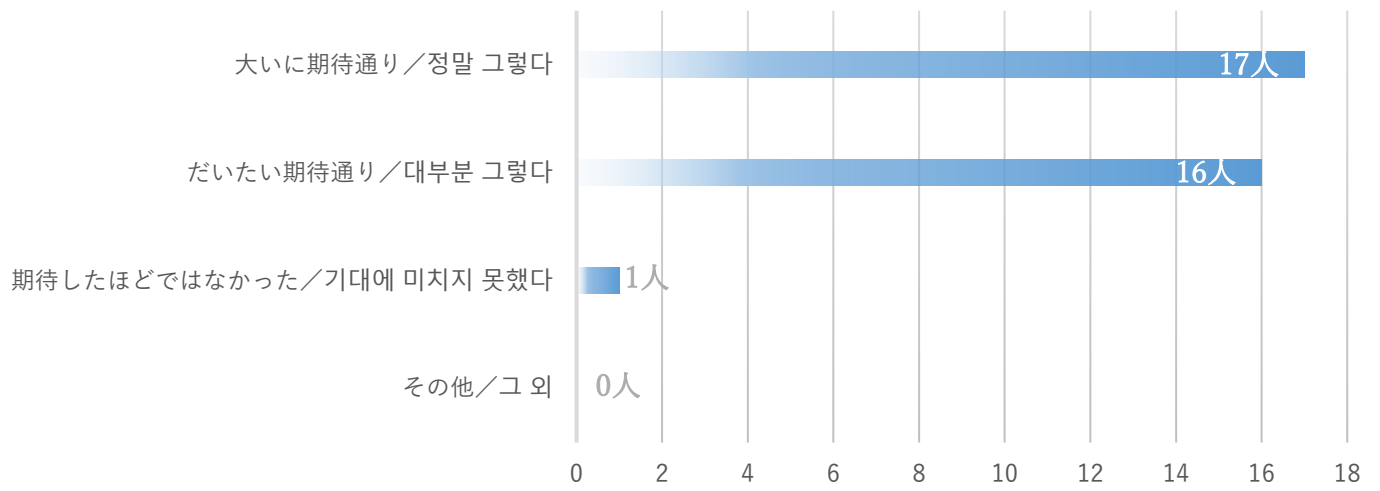
日本/일본	韓国/한국	その他/그 외
茨城県つくば市/이바라키 현 츠크바시	ソウル/서울	メルボルン/멜버른
東京都/도쿄도	京畿道高陽市/경기도 고양시	
千葉県/치바현		
神奈川県/가나가와 현		
神奈川県横浜市/가나가와 현 요코하마시		
神奈川県川崎市/가나가와 현 가와사키시		
埼玉県/사이타마 현		
埼玉県三郷市/사이타마 현 미사토시		
静岡県/시즈오카 현		
北海道札幌市/홋카이도 삿포로시		
秋田県/아키타 현		

今回のフォーラムを何でお知りになりましたか？（複数回答可）

이번 포럼을 어떻게 아셨나요？（복수 답변 가능）



このフォーラムは期待通りでしたか？
이번 포럼은 기대에 부응하는 포럼이었나요?



このフォーラムのご感想・主催者に伝えたいこと等ご自由にお書きください。

- 日韓関係について多方面から俯瞰し、知らなかった点に関して新たに知ることができ、大変有意義な時間でした。
- 最初は音響トラブルで遅延したことは残念でしたが、日韓両国の観点から今後の日韓関係をどのように構築していくかについて聞き、考えられる貴重な時間でした。
- 両国の識者の議論の場をセットしていただき感謝申し上げます。
- 日本の発表者より韓国の発表者のほうがはっきり意見を述べていると感じた。
- 日韓関係の改善は、次期リーダーに代わるまで難しい。まだ時間がかかるということが分かった。
- 先生方のプレゼンテーションがとても濃い内容だった。質問をするには難解な課題だった。たいへん有意義なフォーラムで、最初の音声の技術的トラブルで不安になったが、回復するのを待った甲斐があった。
- 時宜にかなう議論であり発言された方のほぼ全員が日韓関係は改善すべきであることを望んでいる様子であった印象を受ける。両国ともに国際社会において一定の役割が期待されるなかこのような議論がより活発に行われ次につながる種になれることを期待する。
- 最初ハウリングで時間をとられたのが残念でした。
- 最初のマイクトラブルが残念でした。
- 最近日本の先生はきわめて韓国人の若者の考え方を気になることを気づきました。興味深い現象だと思います。
- 久しぶりに日韓関係について考える機会になりました。感情的にならず客観的に関係を見ておられる専門家の方々の議論は本当に参考になりました。
- 音声のハウリングが強くて聴いていただけませんでした。立て込んだ仕事もあったため、途中退席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申し訳ありません。他の機関でのウェブ研修に何度か参加したことがあります。みなさん事前に音声チェックや通信チェックをされているか、もしくは集合時間を15分前くらい早め、参加者全員で音声チェックをしてから本番に入られたりしているケースが多いです。次回このような講座があれば、引き続き参加させて頂きたいと思いますので改善をご検討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よろしく願い致します。
- ハウリングの問題は大変でしたね。難しいですね。お疲れ様でした。
- とても有意義なフォーラムで、大切な事柄を多く学びました。感謝申し上げます。
- とても参考になる内容だったので、今後も参加したいです。
- とてもお勉強になりました。日韓関係について認識が深まりました。
- ご準備大変お疲れ様でした。貴重なお話が聞けました。特に李元徳先生、シム先生、西野先生のご意見、討論が非常に興味深かったです。
- いかに日韓関係の改善を図るかについて、今日の先生方は、日韓基本条約及び小淵金大中宣言への認識を共有したうえで政治に淡いながらも期待し、交流の必要性を感じていたと思います。私も改善を望む立場であり、現在までの経緯など興味深かった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이번 포럼에 대한 의견 혹은 주최자에게 전하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 한일 관계를 여러 방면에서 바라보고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처음에 음향문제로 시간이 지체된 것이 아쉬웠지만, 한일 양국의 시선에서 앞으로의 한일관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아가야 하는지 듣고 생각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양국 지식인의 논의의 장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일본측 발표자보다 한국 발표자가 의견을 분명하게 말한다고 느꼈다.
- 한일관계 개선은 차기 리더로 교체될 때까지 어렵다. 아직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걸 알게 됐다.
- 선생님들의 프레젠테이션이 매우 심도 깊은 내용이었다. 질문하기엔 난해한 과제였다. 매우 뜻깊은 포럼으로, 처음 음성의 기술적 문제로 불안을 느꼈지만, 고쳐지길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 시의적절한 논의로, 발언하신 분 거의 전원이 한일관계의 개선을 바라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양국 모두 국제사회에서 일정한 역할이 기대되는 가운데, 이와 같은 논의가 보다 활발하게 이뤄져, 다음으로 이어질 씨앗이 될 것을 기대한다.
- 처음 목소리 울림으로 시간이 소모된 게 아쉬웠습니다.
- 처음 마이크 문제가 아쉬웠습니다.
- 최근 일본의 선생님은 상당히 한국인 젊은이들의 생각을 신경쓰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랜만에 한일관계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였습니다. 감정적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관계를 보고 계신 전문가 분들의 논의는 대단히 참고가 됐습니다.
- 음성 울림이 심해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밀린 일도 있어 도중에 나가게 됐습니다.죄송합니다. 다른 기관의 웹 연수에 몇번인가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만,모두 사전에 음성 체크, 통신체크를 했거나,집합시간 15 분전 정도에 일찌감치 참가자전원이 음성체크를 하고 나서 본회의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다음에 이와 같은 강좌가 있다면, 계속해서 참가할 생각이오니 개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잘 부탁드립니다.
- 목소리 울림 문제로 고생하셨습니다. 어려운 문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 매우 뜻깊은 포럼으로 중요한 걸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매우 참고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다음번에도 참가하고자 합니다.
- 매우 공부가 됐습니다. 한일관계에 대한 인식이 깊어졌습니다.
-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귀중한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원덕 선생님, 심 선생님, 니시노 선생님의 의견과 토론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 어떻게 한일관계 개선을 하나갈지에 대해, 오늘 선생님들께서는 한일기본조약 및 오부치김대중선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시고, 그 위에서 정치에 약간이나마 기대하고, 교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선을 바라는 입장이고, 현재까지의 경위 등이 흥미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